

01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 개의 갈대가 땅 위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다. 만일 그 가운데 한 개를 제거해 버리면 두 개의 갈대는 서지 못하고, 두 개의 갈대를 제거해 버리면 나머지 한 개도 역시 서지 못한다. 그 세 개의 갈대는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관계를 가짐으로써 존재할 수 있고, 그 관계가 깨어질 때 존재도 사라지게 된다.

- ① 모든 현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알아라.
- ② 예법을 통해 본성을 교화하여 도덕적인 행동을 실천하라.
- ③ 선한 본성을 바탕으로 효제충신(孝悌忠信)의 덕을 실천하라.
- ④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참된 자아[我]를 찾아라.
- ⑤ 눈앞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영원불변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1번, 제시문은 불교의 연기설이다. 연기설은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의 상호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강조하여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주장한다. 또한 불교에서는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할 때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② 순자의 입장이다. ③ 유교의 입장이다. ④ 불교에서는 불변의 실체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⑤ 불교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일시적으로 생멸한다고 본다.

02 다음 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삿된 견해, 삿된 뜻, 삿된 말, 삿된 행위, 삿된 생활, 삿된 노력, 삿된 생각, 삿된 선정(禪定)은 저 언덕[彼岸]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바른 견해, 바른 뜻,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생각, 바른 선정이 곧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이다.

- ① 하늘의 도(道)를 본받고자 경(敬)을 실천하려는 노력이다.
- ② 지인(至人)이 되기 위한 수행으로 팔정도(八正道)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불변의 자아를 찾아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중생을 구제하고 윤회를 추구하는 보살이라면 수행해야 할 덕목이다.
- ⑤ 무명과 애욕을 없애기 위한 중도(中道) 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다.

2. 5번, 제시문은 팔정도에 관한 설명이다. 팔정도는 열반에 이르기 위한 중도(中道)의 대표적인 수행 방법을 말한다. 제시문의 ‘저 언덕’이란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난 해탈과 열반의 경지를 말하며, 이는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적 경지이다. ① 유교의 수양법에 관한 설명이다. ② 지인은 도가 사상가인 장자의 이상적 인간상이다. ③ 불교에서는 불변의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④ 육바라밀에 관한 설명이다.

03 (가) 사상의 입장을 (나) 그림과 같이 탐구할 때, A,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모든 사물의 본래 모습을 파악함으로써 모든 사물에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이다. 실체가 없다는 것은 독자적인 본성이 없다는 뜻이다.
나. (나)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TD Start[“(가)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아니요" --> B{B} B -- "예" --> End[“..... 특징을 가진 입장”] </pre> <p>다.</p> </div> <p>Legend: 출발 조건 판단 내용 판단 결과 → 판단 방향 </p>

- ① A : 모든 사물은 불변하는 속성을 가지는가?
- ② A : 모든 현상은 인과 연에 따른 일시적인 것인가?
- ③ B : 무명(無明)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④ B : 중생의 구제보다는 개인의 해탈을 추구해야 하는가?
- ⑤ B : 사회와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을 지켜나가야 하는가?

3. 1번, 4 ㉞는 대승 불교의 공(空) 사상이다. 공 사상에 따르면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대승 불교에서는 공 사상을 바탕으로 이기심을 버리고 중생과 함께할 것을 강조한다.② 대승 불교에서 ‘예’라고 답할 질문이다.③ 무명이란 만물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이다. 불교에서는 무명이 인생의 고통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따라서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다.④, ⑤ 소승 불교가 긍정할 질문이며 대승 불교에서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다

04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불성(佛性)은 부처가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

<보기>
 ㄱ. 인간은 다른 사물과 비교하여 우월한 존재인가?
 ㄴ.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는가?
 ㄷ. 모든 존재는 귀천의 구분이 없는 평등한 존재인가?
 ㄹ. 모든 생명체는 개별적인 속성을 가진 독립적 존재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3번, 06 제시문은 불교의 평등적 세계관을 보여 준다. 불성이란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성질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만물이 이러한 불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모두 평등하며, 존엄하다고 주장한다. ㄱ. 불교의 입장에서 부정의 답을 할 질문이다. 불교에서는 만물이 평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ㄷ. 불교의 입장에서 부정의 답을 할 질문이다. 불교에서는 생명체를 포함한 모든 만물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상호 의존적 존재라고 보기 때문이다.

05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모든 존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항상 변화한다. 따라서 세상의 참모습은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변화를 거듭하게 된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 실체적인 자아(自我)가 없다. 이러한 세상의 참모습을 바르게 알게 되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三毒)이 사라진다.

<보기>
 ㄱ. 모든 것은 인연생기[緣起]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인가?
 ㄴ. 바른 수행으로 애욕(愛慾)을 실천하면 해탈에 이르는가?
 ㄷ. 현생의 업(業)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다음 생이 이어지는가?
 ㄹ.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 인간의 자아는 무상(無常)한 것이 아닌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2번, 제시문은 삼법인의 가르침이다. 불교의 삼법인은 세상의 모든 현상과 존재의 참다운 모습에 대한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담고 있다.18 바른답·알찬풀이 ㄴ. 불교의 입장에서 부정의 답을 할 질문이다. 애욕은 고통이 생겨나는 원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ㄷ. 불교의 입장에서 부정의 답을 할 질문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자아도 실체가 없다고 본다.

06 다음 사상이 강조하는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출가자가 가까이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두 가지 극단은 무엇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쾌락을 탐닉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확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부처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 ① 참선을 통해 무명(無明)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② 극한의 고행을 통해 해탈의 경지를 지향해야 한다.
 ③ 삼독(三毒)을 추구하여 인생의 진리를 파악해야 한다.
 ④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넘어 심신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6. 5번, 제시문은 중도(中道) 사상이다. 중도 사상은 지나치게 쾌락에 빠지거나 지나치게 계율이나 고행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① 불교에 따르면 무명은 고통이 생겨나는 원인이다. ②, ④ 중도 사상은 극한의 고통과 쾌락을 모두 지양한다. ③ 삼독은 현실 세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므로 제거해야 한다.

07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리	내용
고성제(苦聖諦)	㉠
㉡	고통이 생기는 원인
㉢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
도성제(道聖諦)	㉡

- ① ㉠은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 ② ㉡은 집성제(集聖諦)이며 불변하는 자아를 망각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은 멸성제(滅聖諦)이며 열반의 경지를 말한다.
- ④ ㉢은 팔정도에 따라 중도의 수행을 하는 것이다.
- ⑤ ㉡이 인간의 현실과 관련된 진리라면, ㉢은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7. 2번, 제시된 자료는 사성제를 정리한 도표이다. 사성제는 석가모니가 깨달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이다. 사성제는 연기설에 기초하여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과 그것을 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 ㉡에 들어갈 말은 집성제이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실상을 모르는 무명과 이로 인한 애욕 때문에 집착이 생겨나고 그 결과 고통을 겪는다고 본다.

9. 다음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모든 존재는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상대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어서 실체적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나’ 라는 존재도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으며, 그 밖의 어떤 것도 실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보기>
 ㄱ. 모든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ㄴ. 이 세상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자각해야 한다.
 ㄷ. 삶과 존재의 본질인 허무함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ㄹ.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의 불변성과 영원성을 부정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9. 4번, 제시문은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이다. 연기적 세계관은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며, 사물의 고정된 본질이나 실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ㄷ.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은 모든 존재와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성하고 소멸하므로 집착에 따른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이는 허무주의와 거리가 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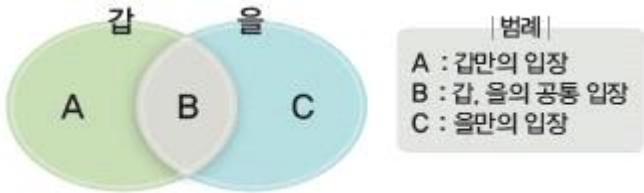
10.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석가모니의 열반 후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에 의해 구두로 전승되었다. 이후 경전을 편찬하여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계율과 교리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교파의 분열이 나타났다. 이 시기의 불교는 ㉠

- ① 보살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하였다.
- ② 중생의 구제를 궁극적 목표로 지향하였다.
- ③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으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④ 반야경의 출현과 용수의 공(空) 사상을 배경으로 성립되었다.
- ⑤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고 사회와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을 강조하였다.

10. 5번, ㉠에는 부파 불교에 관한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 부파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여 훗날 대승 불교로부터 소승(작은 수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대승 불교에 관한 설명이다.

11.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아니며, 단멸하는 것도 아니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며,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p> <p>을 : 이것들은 다만 식일 뿐[唯識]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눈병에 걸린 사람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머리카락이나 달 등이 보이는 것과 같다.</p>
(나)	

<보기>

- ㄱ. A : 모든 존재는 연기(緣起)에 따라 존재한다.
 ㄴ. B : 자아[我]는 오온(五蘊)의 일시적인 결합에 불과하다.
 ㄷ. B : 모든 사물의 독자적인 실체[自性]는 존재하지 않는다.
 ㄹ. C : 사물은 실재하지 않지만 사물을 인식하는 마음[識]은 실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 5번, 갑은 용수, 을은 세친이다. 용수는 중관 사상을, 세친은 유식사상을 주장하였다.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은 불교의 기본 교리를 계승하며, 공 사상을 발전시킨다. 따라서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해 생성·소멸한다고 보며, 모든 존재와 현상의 실체, 즉 자성(自性)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유식 사상은 마음의 작용인 식(識)의 존재는 인정한다. ㄱ.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 모두 연기설을 계승한다.

12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욕계(慾界) · 색계(色界) · 무색계(無色界), 즉 삼계(三界)가 모두 공(空)이다. ‘나타난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고, 경전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말고, 성현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마라. 네 의도를 비우고, 원하는 바를 끊어라.

- ① 중생의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무명(無明)을 깨달아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③ 무아(無我)를 깨달아 중도와 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
 ④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삼독(三毒)의 제거해야 한다.
 ⑤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생멸(生滅) 변화함을 알아야 한다.

12. 2번, 제시문은 대승 불교의 주장이다. 대승 불교에서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만물에는 고정된 실체가없음을 깨닫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곧 만물에는 자성(自性)이 없으며, 즉 공(空)함을 깨닫는 것이다. 한편 대승 불교는 소승 불교와 달리 중생의 구제를 중시한다. ② 무명(無明)은 세계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한 상태이므로 불교에서는 무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강조한다.

13. 다음은 중국의 불교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몸은 깨달음의 나무이고, 마음은 밝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을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게 비추는 거울에는 받침대가 없습니다. 불성은 늘 맑고 고요하니 그 어디에 티끌이 끼겠습니까? 그러므로 ㉠

- ① 본성을 직관하여 단박에 깨우쳐야 합니다.
 ② 깨달은 후에도 반복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 ③ 깨달음조차 있고 점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④ 점진적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해야 합니다.
- ⑤ 깨달음을 얻기 위해 경전의 공부에 힘써야 합니다.

13. 1번, 갑은 신수, 을은 혜능이다. 당나라 선종은 신수의 북종과 혜능의 남종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신수는 점진적인 수행, 즉점수(漸修)를 통해 점차 깨달아 나가는 것을 강조하였다. 반면 혜능은 내가 곧 부처임을 단박에 깨우치는 돈오(頓悟)를 주장하였다. ② 한국 불교 사상이 지눌의 돈오점수 사상이다. ③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통해 부처가 되고자 하므로 불교와 거리가 먼 진술이다. ④ 신수의 점수(漸修)에 관한 설명이다. ⑤ 교종의 입장이다

14.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부처는 자신의 본성 속에서 이루어지니 자신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라. 자신의 본성이 미혹되면 중생이고, 자신의 본성을 깨달으면 부처이다.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는 것이니 점진적 단계라는 것은 없다.

<보기>

- ㄱ. 법(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
- ㄴ. 깨달음을 통해 자비의 윤리를 실천해야 한다.
- ㄷ. 글[文字]은 진리를 가리키는 수단으로 간주해야 한다.
- ㄹ. 지속적 수행을 통해 깨우침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4. 4번, 제시문은 중국의 선종 사상가 혜능의 주장이다. 그는 불성(佛性)을 깨우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자신의 본성이 부처임을 단박에 깨우치면 그것으로 수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는 돈오돈수의 입장을 취하였다. ㄹ. 신수의 입장이다. 그는 점수(漸修), 즉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마치 계단을 오르듯 점진적으로 깨달음에 도달한다[점오, 漸悟]고 보았다.

15. 다음 사상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깨끗함과 더러움은 그 성품이 둘이 아니고, 참과 거짓 또한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一]라고 한다. 그러나 이 둘이 없는 자리에 모든 법의 진실다움이 허공과는 달라 스스로 신령스럽게 아는 성품이니, 이를 마음(心)이라고 한다. …… 이 같은 마음의 도리는 말을 여의고 생각을 초월했으니 무엇이라고 지목할 바를 몰라 억지로 이름하여 ‘하나인 마음[一心]’이라고 한다.

- ① 깨우친 이후에도 점수(漸修)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② 한국 불교의 원융회통(圓融會通)의 전통을 수립하였다.
- ③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시켜 고집하지 말고 조화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 ④ 누구나 염불을 외우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 ⑤ 일심(一心) 사상을 통해 모든 생명체에게 이로움을 주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였다.

15. 1번, 제시문은 원효의 주장이다. 그는 일심 사상을 통해 한국 불교의 원융회통의 전통을 수립하였으며,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① 돈오점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은 지눌이다

16. 밑줄 친 ‘그’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는 불교를 어렵게 느끼던 대중에게 염불만 외우면 누구나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설파하여, 당시 귀족 중심의 불교를 민중 불교로 전환시키고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가 스스로 파계하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 무애행(無碍行)을 실천한 것도 불교의 대중화와 중생 구제에 중점을 둔 것이다.

<보기>

- ㄱ.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주장하였다.
- ㄴ. 도가 사상의 개념을 바탕으로 불교를 해석하였다.
- ㄷ.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 불교의 전통을 수립하였다.
- ㄹ. 일심(一心)으로 돌아가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

①

-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5번, 밑줄 친 ‘그’는 원효이다. 그는 어려운 불교 경전을 공부하지않아도 누구나 ‘나무아미타불’의 염불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ㄱ. 지눌의 주장이다.ㄴ. 격의불교에 관한 설명이다. 격의불교란 중국에 불교가 처음 유입되었을 때 도가 사상의 개념을 빌려서 불교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을말한다.

17. 갑, 을 사상가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교(敎)를 공부하는 사람은 외적인 것을 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선(禪)을 익힌 사람은 내적으로 깨치
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양극단에 서 벗어나 양자를 고루 갖추어야 한다.

을 : 깨침은 아는 것이며, 닦음은 실천이다. 우리의 본래 성품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분명히 깨치는 것이 돈오
(頓悟)이다. 그러나 깨우친 이후에도 그릇된 습기(習氣)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보기>

- ㄱ. 갑은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수행을 강조하였다.
- ㄴ. 갑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 ㄷ. 을은 소승 불교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 ㄹ. 갑, 을은 원융회통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상을 전개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4번, 갑은 의천, 을은 지눌이다. 우리나라에 교종과 선종이 유입된이후 고려 시대에는 교종과 선종 간의 갈등이 생겨났다. 이때 의천과 지눌은 원효의 원융회통 정신을 계승하여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사상을 전개하였다.ㄱ. 정혜쌍수를 강조한 것은 지눌이다.ㄷ.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주로 대승 불교의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소승 불교는 주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전승되었다.

18. 다음 사상가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교(敎)를 배우는 자가 내(內)는 버리고 외(外)만을 구하며, 선(禪)을 익히는 사람이 인연 이론은 잊어버리고 내
(內)만 좋아하니 이는 모두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다.

<보기>

- ㄱ.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하였다.
- ㄴ. 교리 공부와 참선을 병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 ㄷ. 아라한이 되기 위한 수행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 ㄹ. 속세를 벗어난 수행을 통한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1번,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의천이다.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의천은 고려의 교종인 천태종의 창시자이면서도 경전의 교리 공부는 물론 선종의 수양법인 참선 수행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ㄷ. 아라한은 부파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이다. 원효, 의천, 지눌 등 한국 불교 사상가는 대승 불교에 뿌리를 둔다.ㄹ. 소승 불교의 특징이다. 한국 불교는 사회적 불교인 대승 불교를 수용하여 중생의 구제에 힘쓴다.

19. 갑, 을 사상가의 입장에 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교종(敎宗)을 공부하는 사람은 내적인 것을 버리고 외적인 것만을 구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반면에 선종(禪宗)을 공부하는 사람은 외부의 대상을 잊고 내적으로만 깨달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모두 양극단에 치우친 것으로, 양자가 골고루 안팎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을 :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는 사람도 이미 여러 생(生)에 걸쳐 깨달음에 의지해 점진적으로 닦아 오다가, 이번 생에 이르러 듣는 즉시 깨달아 한 번에 모두 마친 것일 뿐이다. 요컨대, 돈오와 점수(漸修) 두 가지 문이 있을 뿐이다.

<보기>

ㄱ. 갑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ㄴ. 을은 깨우침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행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ㄷ. 갑은 을에게 조화의 정신을 간과하였음을 비판하였다.

ㄹ. 갑, 을은 원효의 원융회통(圓融會通)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9. 4번, 갑은 의천, 을은 지눌이다. 의천과 지눌은 각각 고려 시대의교종과 선종의 대표적인 사상가이다. 두 사상가는 모두 원효의 원융회통의 정신을 계승하고 교종과 선종 간의 조화와 화해를 추구하였다.ㄷ. 한국 불교의 특징 중 하나는 ‘조화의 정신’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는 원효에서 비롯되어 의천과 지눌에게 계승되었다.

20.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禪)은 부처의 마음이요, 교(敎)는 부처의 말씀이다. 깨침[悟]과 닦음[修]은 분리될 수 없으며, 마음이고요하고 자취도 없는 본체인 정(定)이나 깊은 지성의 작용인 혜(慧)도 또한 닦아야 한다.

- ① 선종과 교종은 본래 하나이다.
- ②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해야 한다.
- ③ 수행 과정에서 교학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 ④ 선정(禪定)과 지혜(知慧)를 병행하여 닦아야 한다.
- ⑤ 단번에 진리를 깨친 뒤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20번, 제시문은 지눌의 입장이다. 그는 고려 시대 선종인 조계종의창시자로 교종과 선종이 본래 하나라고 주장하였으며, 돈오점수, 정혜쌍수 등을 강조하였다.②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통합을 추구하였다.

21. 다음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람은 땅을 법칙 삼아 어긋나지 않고, 땅은 하늘을 법칙 삼아 어긋나지 않으며, 하늘은 도(道)를 법칙 삼아 어긋나지 않고 도는 자연을 법칙 삼아 어긋나지 않는다.

라. <보기>

ㄱ.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살아야 한다.

ㄴ. 통치자는 덕성과 예의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한다.

ㄷ. 물과 같은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을 갖추야 한다.

ㄹ. 극기복례(克己復禮)를 실천하여 인(仁)을 실현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1. 2번, 제시문은 노자의 주장이다. 그는 무위자연의 삶을 이상적 삶으로 제시하였으며, 상선약수, 즉 으뜸이 되는 선은 물과 같다고 하여 겸허와 부쟁의 덕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ㄴ. 공자의 주장이다. 노자는 이상적인 정치를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이라고 본다.ㄹ. 공자의 주장이다. 노자는 인의와 같은 인위적인 도덕을 부정한다.

22.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토는 작고 백성의 수가 적다. 비록 다양한 도구나 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쓰지 않는다. 백성들로 하여금 저마다 삶을 아끼고 떠돌아다니지 않게 한다. 비록 배나 수레가 있어도 타고 다닐 필요가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쓸 필요가 없게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끈을 묶고 매듭을 지어 쓰게 한다. 이웃하는 나라들이 서로 바라다보이며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 ① 통치자보다는 백성의 평화로운 삶이 더 중요한가?
- ② 자연 그대로의 질서를 따르는 삶이 바람직한 삶인가?
- ③ 인위적인 문명이나 제도에서 벗어난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 ④ 거대한 통일 제국을 실현하여 백성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하는가?
- ⑤ 통치자는 백성을 무지(無知)와 무욕(無慾)으로 인도해야 하는가?

22. 4번, 제시문은 노자가 이상 사회로 제시한 소국과민이다. 소국과민은 작은 영토에 적은 백성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이며, 백성들의 소박한 삶이 실현되는 사회이다.④ 노자는 거대한 통일 제국에 반대하고 백성의 평화로운삶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23. 다음 사상가의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성인(聖人)은 말한다. 나는 힘이 없어도 백성들은 스스로 교화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은 스스로 바르게 되고, 내가 아무 일도 벌이지 않아도 백성들은 스스로 풍족해지고, 내가 욕심을 내지 않으니 백성들은 스스로 순박해진다.

<보기>

- ㄱ.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을 해야 한다.
- ㄴ.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위해 상과 벌로 다스려야 한다.
- ㄷ. 작은 영토에 적은 백성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ㄹ. 거대한 통일 제국보다는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을 중시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3. 5번, 제시문은 노자의 주장이다. 그는 인위적인 규범과 문명을 거부하고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통치자가 무위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자가 무위의 정치를 이상적 정치 형태로 제시한 까닭은 통일 제국보다는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을더욱 중시했기 때문이다.ㄴ. 한비자의 주장이다.

24. 다음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대도(大道)가 없어지면 인의(仁義)가 강조되고, 지혜가 발달하면 크나큰 거짓이 판을 치며, 육친(肉親)이 화목하지 못하면 효도와 사랑이 생겨나고, 나라가 혼란하면 충신이 나오게 된다.

<보기>

- ㄱ. 무위(無爲)의 덕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 ㄴ. 옳고 그름을 구분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 ㄷ. 허정(虛靜)의 수양을 통해 인간의 본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 ㄹ.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외면적인 사회 규범을 통해 다스려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4. 2번, 제시문은 노자의 주장이다. 그는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인위적인 사회 제도를 혼란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허정의수양을 통해 무위자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였다.ㄴ. 맹자의 주장이다.ㄹ. 순자의 주장이다

25. 다음 사상가가 제시한 이상적 인간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인(聖人)의 정치는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앎이 없고[無知] 욕심이 없게 하여[無欲], 저 아는 자로 하여금 감히 손댈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위(無爲)를 행하기만 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가 없게 된다.

- ① 물과 같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며 살아간다.
- ② 차별적인 사랑에 반대하고 겸애(兼愛)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③ 양지(良知)를 보존하여 타고난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④ 사욕(私慾)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禮)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⑤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가르쳐 구제하는 삶을 살아간다.

25. 1번, 제시문은 노자의 주장이다. 노자가 주장하는 이상적 인간상인 성인(聖人)은 유교의 성인과 달리 인위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간다. ② 묵자의 주장이다. ③ 맹자의 주장이다. ④ 공자의 주장이다. ⑤ 불교의 보살에 관한 설명이다.

26.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도(道)는 땅강아지나 개미한테도 있고, 기와나 벽돌에도 있으며, 똥이나 오줌에도 있다.
- 오리 다리가 비록 짧지만 길게 이어주면 걱정거리가 되고, 학의 다리가 비록 길지만 끊으면 슬픈 일이다. 그러므로 본성이 긴 것은 잘라서는 안 되고, 본성이 짧은 것은 이어서는 안 된다.

- ① 예악(禮樂) 문화를 되살려 사회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
- ② 시비(是非)와 선악(善惡)을 엄밀하게 분별해야 한다.
- ③ 자연의 유용성을 깊이 인식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④ 분별적 지식에서 벗어나 도(道)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아야 한다.
- ⑤ 상대주의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성인(聖人)의 예의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6. 4번, 제시문은 장자의 주장이다. 첫 번째 자료는 만물이 도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도가 어느 곳이나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자료는 장자의 상대주의적이고 평등적인 세계관을 보여준다. 이처럼 장자는 만물이 도(道)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모두평등하다고 주장하면서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하여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이를 것을 강조하였다. ①, ② 유교의 입장이다. ③ 도가에서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라고 여긴다. ⑤ 장자는 만물이 평등하며 저마다 가치를 갖는다는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지녔으며, 인위적으로 만든 예의 법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27. 다음 이야기를 통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자세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우물에서 항아리로 물을 퍼내어 밭에 어렵게 물을 대는 노인을 보았다. 애를 쓰긴 하는데 효과는 아주 적었다. 젊은이는 물을 퍼내는 기계를 사용하면 힘들지 않게 물을 댈 수 있다고 일러 주었다. 그러나 노인은 기계를 사용하면 기계로 인한 일이 생겨나고 그러면 마음이 기계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응대하였다.

- ① 자신의 이름에 맞는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
- ②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분별지를 함양해야 한다.
- ③ 욕망의 절제를 통해 선한 본성을 실현해야 한다.
- ④ 집의(集義)를 통해 자연적 순박함을 유지해야 한다.
- ⑤ 외물(外物)의 속박에서 벗어나 소요의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

27. 5번, 제시문은 장자가 제시한 일화이다. 장자는 도를 깨달아 인위적인 기준이나 외적 제약에 의존하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인 소요에 이를 것을 강조하였다. ① 공자의 정명 사상에 따른 삶의 자세이다. ② 장자는 분별지, 즉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분별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혼란의 원인으로 보며, 지양한다. ③ 맹자의 주장이다. ④ 집의는 맹자, 자연적 순박함은 장자가 강조한다.

28.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에 나는 꿈에 나비가 된 적이 있었다. 그때는 분명히 훨훨 나는 나비로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내가 나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갑자기 꿈을 깬 뒤에 보니 엄연히 장자였다. 나는 꿈에 나비가 되었던 것인가? 아니면 나비의 꿈에 현재의 내가 되어 있는 것인가? 나비와 나는 차이가 있을 터이지만 알 수가 없다.

- ① 도(道)의 관점에서 보면 사물에는 귀천이 없다.
- ② 도(道)는 만물을 생성·변화하게 하는 근본 원리이다.
- ③ 만물은 각자 고유한 특성을 지니므로 모두 평등하다.
- ④ 세상 만물은 모두 하나로 같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 ⑤ 인간은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본성을 지니므로 이러한 본성을 확충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28. 5번, 제시문은 장자의 주장이다. 장자는 ‘모든 만물은 저마다 고유한 가치를 지니므로 모두 평등하다.’는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보여 주며, 세속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몰아일체의 경지(境界)에 이를 것을 강조하였다. ⑤ 도덕적 본성을 강조하는 것은 유교의 입장이다. 도가에서는 인간이 순수하고 소박한 자연의 덕을 닮은 존재라고 본다.

29. 다음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람들은 소, 양, 돼지를 잡아먹고, 고라니와 사슴은 풀을 먹고, 지네는 뱀을 먹고, 술개와 까마귀는 쥐를 좋아한다. 이들 중에서 어느 동물의 입맛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고라니는 사슴과 교미를 하며,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어울려 논다. 내가 보건대 세상 사람들이 인의(仁義)와 시비(是非)를 어지럽게 주장하지만 어찌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보기>

- ㄱ. 소요(逍遙)와 제물(齊物)의 경지를 추구한다.
- ㄴ. 아름다움과 추함을 가르는 명확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한다.
- ㄷ.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만물은 평등하다는 관점에서 인식한다.
- ㄹ. 선악(善惡)과 시비(是非)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장려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9. 2번, 제시문은 장자의 주장이다. 그는 분별적 지혜가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하는 제물로 소요의 경지에 이를 것을 강조하였다. ㄴ, ㄹ. 장자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옳고 그름 등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려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할 것을 강조하였다.

3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자기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 분별 작용[知]을 버린다면 도(道)와 한 몸을 이루어 두루 통하게 된다. 이것을 좌망(坐忘)이라고 한다.
- 기는 텅 비움으로써 바깥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맞아들인다. 도(道)는 오로지 텅 비우는 곳에 모이는 법이다. 이처럼 텅 비우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심재(心齋)라고 한다.

- ① 도덕적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② 훌륭한 군주는 먼저 군자다운 인격을 닦아야 한다.
- ③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중용(中庸)을 실천해야 한다.
- ④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분별지(分別智)를 함양해야 한다.
- ⑤ 외물(外物)의 속박에서 벗어나 소요(逍遙)를 추구해야 한다.

30.5번, 제시문은 장자의 주장이다. 첫 번째 자료의 좌망과 두 번째 자료의 심재는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인식하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인 소요와 제물에 이르기 위한 수양법이다. ①, ④ 선악을 구분하는 분별지(分別智)는 장자가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본 것이다. ②, ③ 유교의 주장이다.

31.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자를 교조로 받들고 『도덕경』을 경전으로 삼는 ㉠ 이 종교는, 다섯 말의 쌀을 내고 가입한 데서 명칭이 유래하였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쌀로 빈민을 구제하여 백성의 호응을 얻었다.

- ① 세속적 주제와 거리를 두고 청담(淸談)을 즐겼다.
- ② 전설상의 제왕인 황제와 노자를 함께 숭상하였다.
- ③ 무위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제왕의 통치술을 제시하였다.
- ④ 교리를 믿고 도덕적 선행을 하면 신선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 ⑤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철학적으로 계승하여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였다.

31.4번, ㉠은 한나라 말에 성립된 오두미교이다. 오두미교는 도가 사상과 달리 신선과 불로장생을 지향하는 종교이며, 혼란한 시기에 백성의 정신적 위안이 되었다.①, ⑤ 현학에 관한 설명이다.②, ③ 황로학파에 관한 설명이다.

32. 다음 사상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곱 명의 선비가 대나무 숲 속에 모여 거문고와 술을 즐기며 청담(淸談)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들은 청담을 통해 인간의 고정 관념을 초월한 무(無)의 세계를 진실한 세계로 보면서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였다.

- ㄱ. 노자를 신(神)으로 받들고 종교적 구원을 약속하였다.
- ㄴ. 영원히 죽지 않는 신선이 되기 위해 선행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 ㄷ. 부패한 현실에 등을 돌리고 우주론적 최고의 원리와 경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 ㄹ. 도가 사상을 철학적으로 계승하여 형이상학적이고 예술적인 논의를 중시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2. 5번, 제시문은 위진 시대의 현학에 관한 설명이다. 현학을 대표하는 죽림칠현은 정치적 혼란기에 은둔 생활을 하며 청담을 즐겼다. 교단과 교리를 갖추었던 종교인 오두미교와 달리 현학은 노장 사상을 철학적으로 계승하였다. ㄱ, ㄴ. 오두미교에 관한 설명이다.

33. 다음 기록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道)가 있음에 이를 풍류(風流)라고 한다. 그 가르침의 근원에 대해서는 『선사』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삼교(三敎)를 포함하고 백성들을 접하여 교화한다. 집에서는 효를 행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과 같고, 무위(無爲)로 일을 처리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노자의 뜻과 같으며,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같다.

- ① 우리나라는 외래 사상에 대해 배타적이다.
- ② 풍류 사상 속에는 유교의 충효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
- ③ 풍류 사상 속에는 불교의 자비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
- ④ 풍류 사상 속에는 도가의 무위자연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
- ⑤ 풍류 사상은 우리나라에 유교, 불교, 도교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33. 1번, 제시문은 최치원의 주장이다. 그는 「난랑비서문」에서 우리나라에 유교, 불교, 도교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풍류 사상이 존재했으며, 풍류 사상 속에는 유불도의 주요 가르침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전래된 외래사상은 우리의 전통 사상과 융합하면서 한국 사상을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① 제시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외래 종교나 사상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다음 자료와 관련 깊은 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우리나라 고대 고분 벽화에는 학을 탄 신선이나 약그릇을 든 신선의 모습이 등장한다.
- 신라에서는 최고의 화랑 네 명을 사선(四仙)이라고 부르며 신선처럼 대우하였다.
- 고려 시대의 재초는 도관(道觀)에서 거행하였다.
- 조선 후기에는 도참설(圖讖說)이 널리 유행하였다.

- ① 왕실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 ② 주로 국가의 통치 이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③ 자비를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 ④ 국가와 민간에 수용되어 한국 전통 사상과 융합하면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
- ⑤ 사회 제도와 규범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국가 체제가 갖추어지는 데 기여하였다.

34. 4번, 제시문은 한국의 도가·도교와 관련된 자료이다. 우리나라에는 고대로부터 도가·도교적인 전통 사상이 존재했기 때문에 도가·도교 사상을 자연스럽게 수용하여 우리 전통과 융합하였다. ① 도가·도교 사상은 민간에서 널리 유행하였다. ②, ⑤ 도가·도교 사상은 국가의 통치 이념이나 사회를 주도하는 지배적인 사상이 되지는 못하였다. ③ 불교에 관한 설명이다.

35.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 사회는 농촌 경제의 파탄과 국가 재정의 위기, 신분제의 동요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당시 지배적인 사상이었던 성리학은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에 따라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여 실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학문인 (㉠)이/가 등장하였다.

- ① 개화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 ② 근대 지향적이고 개혁적인 면모를 보였다.
- ③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민본주의적 경향을 보였다.
- ④ 화이관(華夷觀)을 바탕으로 우리의 역사와 지리, 문화를 연구하였다.
- ⑤ 사실에 근거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을 탐구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35. 4번, ㉠에 들어갈 말은 실학이다. 실학은 성리학을 비판하며, 민생안정과 국가 개혁을 도모하며, 경제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를 강조하였다. ④ 화이관은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는 관점이다. 실학자들은 화이관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관점에서 학문을 연구하였다.

36. 갑, 을 사사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 오랑캐의 해로움은 홍수나 맹수의 해로움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서양과 화친할 수 없다는 것은 내나라 사람의 주장이고, 서양과 화친하자는 것은 적국 쪽 사람의 주장입니다. 전자를 따르면 옛 문물과 제도를 보전할 수 있지만 후자를 따르면 금수(禽獸)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을 : 그들이 가진 끝없는 탐욕은 우리의 백성을 금수(禽獸)와 같이 만들 것입니다. 만약 통상의 길이 한번 열리면 2, 3년 안에 서양화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전하는 장차 누구와 임금 노릇을 하시려 하십니까?

- ① 유교적 가치와 질서를 지켜야 하는가?
- ② 만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 ③ 성리학에 기초한 봉건적 질서를 극복해야 하는가?
- ④ 외래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 ⑤ 고유 사상과 외래 사상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36. 5번,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제두이다. 그는 양명학의 심즉리설과 치양지설을 새롭게 해석하여 독자적인 학문 체계인 강화학파를 세웠으며, 인간이 도덕적 주체임을 깨달아 사욕을 극복하고 양지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ㄱ. 성리학의 입장이다. ㄴ. 정약용의 성기호설이다.

37.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신이 보건대 요즘에 유생들이 상소문을 올리는 것이 유행이 되어서 마치 큰 변고나 위급한 화가 당장 이를 것 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 상소의 내용은 ‘정학을 옹호하고 사교를 배척해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웃 나라와 사귀고 수교하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 바른 풍습을 지켜 오고 있으니, 기계(器械)에 관한 기술과 농업 및 수예(樹藝)에 대한 책과 같은 것이 만약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선택하여 행할 것이지 굳이 외국의 것이라고 해서 좋은 것까지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점 \ 학생	갑	을	병	정	무
유교적 가치와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			√	√
전제 군주제와 신분 질서를 개혁해야 한다.		√	√	√	
서양의 과학 기술은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	√		√		√
서양의 문물을 배척하고 우리의 문화를 지켜야 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37. 1번, 제시문은 동도서기론을 주장한 광기락의 상소문이다. 동도서기론은 유교적인 가치와 질서는 유지하되 서양의 근대화된 문물을 수용하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온전한 개화사상이다. 두 번째 관점 : 급진 개화론이다. 급진 개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서구 문물의 수용은 물론 전제 군주제나 신분제와 같이 유교에 바탕을 둔 모든 질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네 번째 관점 : 위정척사의 주장이다.

38. 다음을 주장한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한울님을 모시면 한울님의 조화를 반드시 얻게 되고, 한울님을 길이 잊지 않으면 만사(萬事)를 깨닫게 된다.
- 오도(吾道)는 원래 유(儒)도 아니고 불(佛)도 아니고 선(仙)도 아니다. 오도는 유·불·선 합일이니라.

- ① 성리학적 이념으로 외세를 극복해야 한다.
 ② 서학(西學)을 수용하여 사회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③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④ 실용적인 학문을 탐구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⑤ 유교적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서구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

38. 3번, 제시문은 동학의 주장이다. 경천사상의 바탕 위에 유교, 불교, 도교를 조화시켜 성립한 동학은 서학(천주교)을 반대하고 인간 존중과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차별과 궁핍이 사라진 평등한 이상 사회를 제시하였다. ①, ⑤ 위정척사의 입장이다. ② 동학은 서학의 수용을 반대한다. ④ 실학의 입장이다.

39. 갑, 을 사상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도(道)는 바뀔 수 없는 것이지만 기(器)는 수시로 바뀌어 고정적일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도를 행하는 것은 정덕(正德)을 위한 것이요, 저들의 기를 본받는 것은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위한 것이다. 을 :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邪學)의 서적과 천주(天主)의 초상화가 교역 과정에서 들어오고 사학이 온 나라 안에 퍼질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 죄를 묻지 않는다면 예의는 시궁창에 빠지고 인간들은 변하여 금수(禽獸)가 될 것입니다.

- ① 모든 서양 문물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② 유교적 가치 체계와 인륜 도덕을 보존해야 하는가?
 ③ 서양의 과학 기술과 군사 제도를 적극 수용해야 하는가?
 ④ 서양 문물을 수용하여 전통적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⑤ 고유 사상을 기반으로 유교 사상을 새롭게 체계화해야 하는가?

39. 2번, 갑은 동도서기론을 주장한 신기전이고, 을은 위정척사 사상가인 최익현이다. 동도서기론은 유교적 질서를 지키며 서양의 과학 기술이나 군사 제도를 수용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위정척사는 서양 문물의 수용에 반대하며, 유교적 질서를 지키고자 한다.①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③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④ 동도서기론과 위정척사 사상 모두 유교 질서를 지킬 것을 강조하므로 갑,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⑤ 갑,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40. 다음 근대 신흥 종교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천지의 운행 법칙을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써 후천(後天)의 선경(仙境)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보호해야 한다.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들의 원(怨)을 풀어 주어야 한다. 먼저 천지의 운행 법칙과 조화를 이루면 인간의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보기>
 ㄱ. 기존 불교를 개혁하고 한국형 불교를 표방하였다.
 ㄴ. 궁핍과 가난이 사라진 이상 사회를 제시하여 백성들의 호응을 얻게 되었다.
 ㄷ. 최제우가 서학(西學)에 대항하고 나라와 백성을 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창시하였다.
 ㄹ. 강일순이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유교, 불교, 도교, 무속 등을 독자적으로 재해석하여 창시하였다.

①

-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0. 4번, 제시문은 강일순이 창시한 증산교의 주장이다. 증산교는 고유 사상의 바탕 위에 무속과 도가 사상을 재해석한 민족 종교이며, 해원상생 사상과 후천 개벽 사상을 주장하였다.바른답·알찬풀이 27ㄱ. 원불교에 관한 설명이다.ㄷ. 동학에 관한 설명이다.

41. (가)~(다)는 근대 신흥 종교 사상들이다. 이에 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마. (가)	한울님을 모시면 조화가 저절로 얻어지고 한울님을 깊이 잊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깨달아진다.
바. (나)	우주의 근본 원리인 일원상(一圓相)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
사. (다)	선천 시대에는 원한으로 인해 상극(相剋)이 지배하지만, 후천 시대에는 원한이 풀리고 모든 존재가 상생(相生)한다.

<보기>
 ㄱ. (가)는 한국형 불교의 이상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을 제시하였다.
 ㄴ. (나)는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강조하였다.
 ㄷ. (다)는 한국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무속과 도가 사상을 재해석하여 성립하였다.
 ㄹ. (가), (나), (다)는 모두 신분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였다.

①

-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41. 5번, (가)는 동학, (나)는 원불교, (다)는 증산교이다. 이들 근대 신흥종교는 고유 사상의 바탕 위에 유교, 불교, 도교 등을 재해석하여 성립하였으며, 평등한 세상의 도래를 약속하는 후천 개벽 사상을 통해 고통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였다.ㄱ. 원불교에 관한 설명이다

42. (가)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과 같이 탐구할 때, A,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어떤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대로 그것들은 나에게는 그렇게 존재하며, 어떤 것들이 당신에게 나타나는 대로 그것들은 당신에게는 그렇게 존재한다.
(나)	<pre> graph TD Start["(가)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아니요 --> B{B} B -- 예 --> End["..... 특징을 가진 입장"] </pre>

- ① A : 구체적인 인간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가?
- ② A : 세상 모든 것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개인인가?
- ③ B : 공동체의 도덕규범을 실용적 차원에서 부정하는가?
- ④ B : 윤리적 판단에는 상대적인 도덕 판단만이 존재하는가?
- ⑤ B :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선악의 판단은 있는가?

42. 1번, (가) 사상가는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선악의 판단은 없으며, 단지 각자의 상대적인 도덕 판단만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① 프로타고라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소피스트인프로타고라스는 구체적인 인간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② 프로타고라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척도론을 주장하며 각 개인의 지각만이 진리 판단 및 도덕 판단의 기준이라고 보았다.③ 프로타고라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실용성을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보았다.⑤ 프로타고라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프로타고라스는 보편타당한 절대적인 진리와 도덕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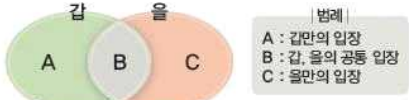
44.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자신이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인간이 가진 무지 중에서 가장 큰 무지입니다. 내가 대다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점에서입니다. 나는 악한 일을 행하는 것과 자신보다 뛰어난 존재를 거역하는 일은 부끄럽고 사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와 힘에 있어서 최고의 평판을 듣고 있는 아테네의 시민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더 많은 부와 명성을 쌓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p>

- ① 악행은 무지(無知)에서 나오는가?
- ② 지식은 모든 덕과 행복의 원천인가?
- ③ 선과 악은 유용성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가?
- ④ 이성을 통해 보편적인 윤리를 파악할 수 있는가?
- ⑤ 세속적 가치보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44. 3번, 제시문은 소크라테스의 주장이다. 소크라테스는 ‘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와 같은 물음을 던지며, 이성을통해 덕과 정의에 관한 보편적인 정의(定義)를 탐구하였다.나아가 진리와 도덕의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과 악이 유용성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입장이 아니라 소피스트의 입장이다.① 소크라테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그는 악행은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② 소크라테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덕을 실천하여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지덕복합일설을 주장하였다.④ 소크라테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이성을 통해 덕과 정의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⑤ 소크라테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세속적 가치보다 삶을 진지하게 숙고하고 성찰하는 삶을 중시하였다.

45. (가)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인가가 존재한다고 해도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말로 표현하거나 전달할 수 없을 것이다.</p> <p>을 : 아무도 자발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 반대의 것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에 대하여 무지하면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것이며, 설사 그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p>
(나)	

<보기>

ㄱ. A : 사회적 출세를 삶의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ㄴ. A : 진리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ㄷ. B : ‘좋은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ㄹ. C : 올바른 삶을 살려면 지속적으로 이성적 성찰을 해야 한다.

①

-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45. 5번, 갑은 소피스트 사상가인 고르기아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소피스트들은 세속적 가치와 사회적 출세를 삶의 목적으로보았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성적 성찰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고르기아스와 소크라테스 모두 추구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좋은 삶은 어떤 삶인가?’에 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였다.